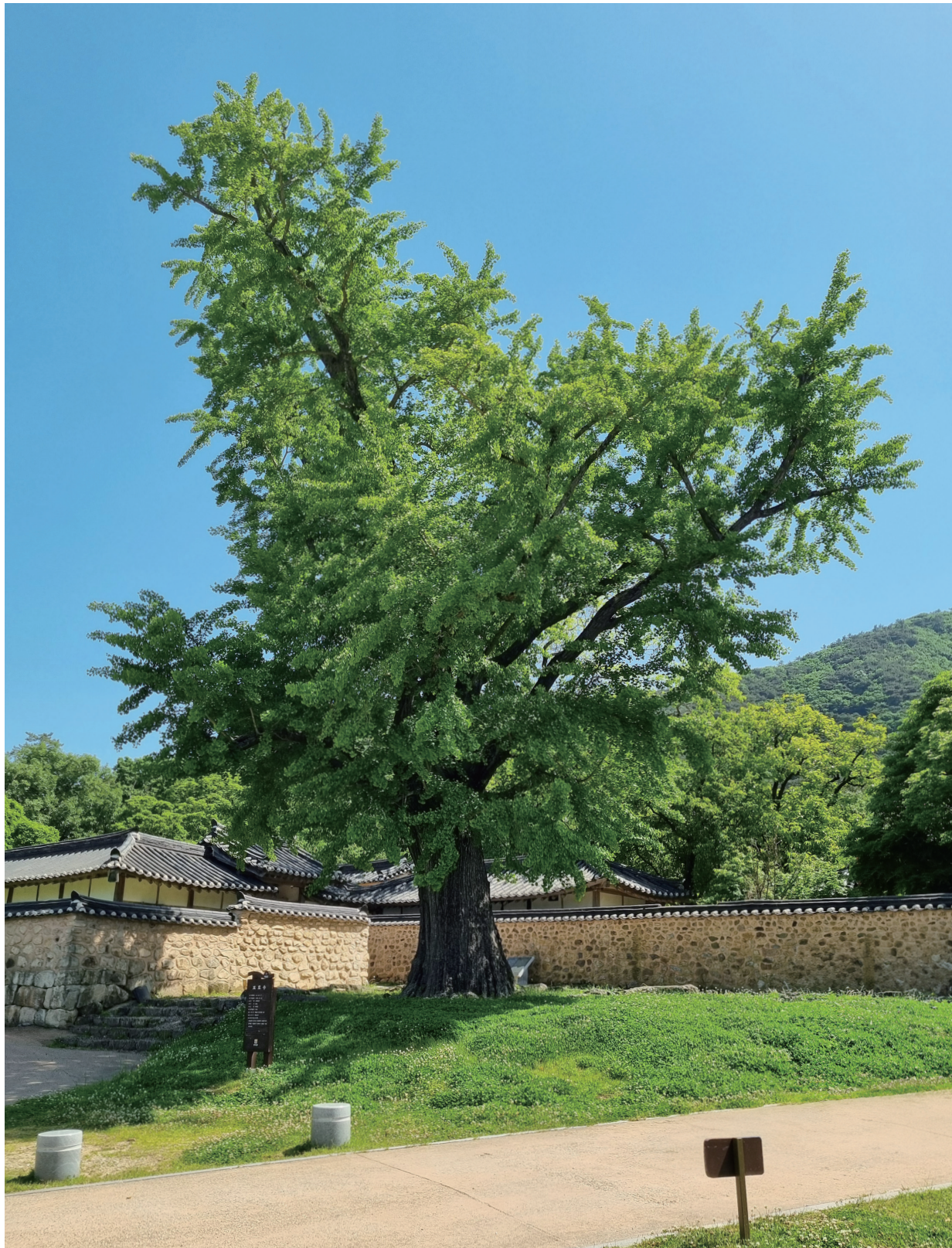




전라지역

은행나무

해남윤씨 고택 녹우당에 심은 은행나무

✳	지정번호	해남-15-14-1-7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지정년도	2003		녹우당길 135
	관리기관	해남		34° 33' 03.00" N
	수령	510년		126° 37' 20.00" E
	수고	23m		
	흉고둘레	6m		

녹우당의 상징인 보호수(해남-15-14-1-7) 은행나무는 기와 돌담으로 이어진 대문 바로 앞에 우뚝 서 있다. 연동마을의 녹우당(綠雨堂)은 해남윤씨 고택의 유적이며 유물이다. 녹우당은 1501년 윤선도의 4대 조부 윤효정(1476~1543)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남윤씨 집안은 윤효정 이후 5대에 이여지며 과거 급제자가 나와 명문으로 이어졌고, 해안 간척지를 개척하여 재력가가 되었다. 남인을 이끌던 윤선도가 벼슬에 미련을 버리고 녹우당으로 귀향할 때에 수원(화성)의 사랑채를 옮겨오고, 백련지 연못을 큰 규모로 개수하였다. 사랑채는 효종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윤선도에게 하사하여 지어준 살림집이다. 이를 1668년에 뱃길로 남부지방의 해남까지 옮겨왔던 것이다. 윤선도의 증손인 윤두서 이후의 녹우당은 더욱 풍성해졌다. 이전의 종갓집에 보태어 1821년 가묘와 3개의 사당이 중건되었다. 이어 행랑채를 신축하고, 1938년에 녹우당 뒤 재각인 추원당을 신축하였다.

현재의 녹우당은 그렇게 400년간의 증축과 개수의 과정을 겪은 결과물인 것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정도이다. 녹우당 앞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문 앞에 우뚝 서 있는 은행나무이다.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만 이 집을 대표하는 나무는 단연 대문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은행나무이다. 전승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윤선도의 4대 조부인 어초은이 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을 기념하며 심은 것이다. 은행나무는 처음에 아들 4형제처럼 마을 동산에 4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2그루만 남았다. 해남 윤씨 집안은 선조들이 대를 이어 집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 녹우당에는 은행나무 이외에도 몇 수종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3백 살을 넘긴 곰솔(해송)과 나이가 비슷한 회화나무가 그것이다. 한편 뒷산 9만 여 평에 이르는 '해남연동리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이다.